

보도시점 2026. 9. 11.(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2026. 9. 10.(목)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보러 오세요...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 개최

- 염생식물과 갯벌 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기획전 9월 11일 개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올해 9월 11일부터 내년 (2027년) 3월까지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해구 소재)에서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 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이번 기획전은 염분이 있는 토양에서 살아가는 염생식물과 갯벌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물을 함께 소개해 갯벌 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포스코이앤씨, △해양경찰청, △월드비전, △인천항만공사, △인천 사랑의열매, △포스코1%나눔재단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 기업 및 기관은 염생식물 생육지 복원과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에 힘썼으며, 이번 기획전은 이들 기업 및 기관의 공헌 활동을 비롯해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한다.

총 26종의 염생식물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나문재, 통통마디, 해홍, 칠면초 등 염생식물 4종의 대형 모형을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염생식물의 군락지와 갯벌 생물의 모습을 실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갯벌에 서식하는 쟁뚱어 등 어류와 칠게, 백합 등 무척추동물, 저어새 등 조류의 표본을 전시하며 살아있는 말뚝망둥어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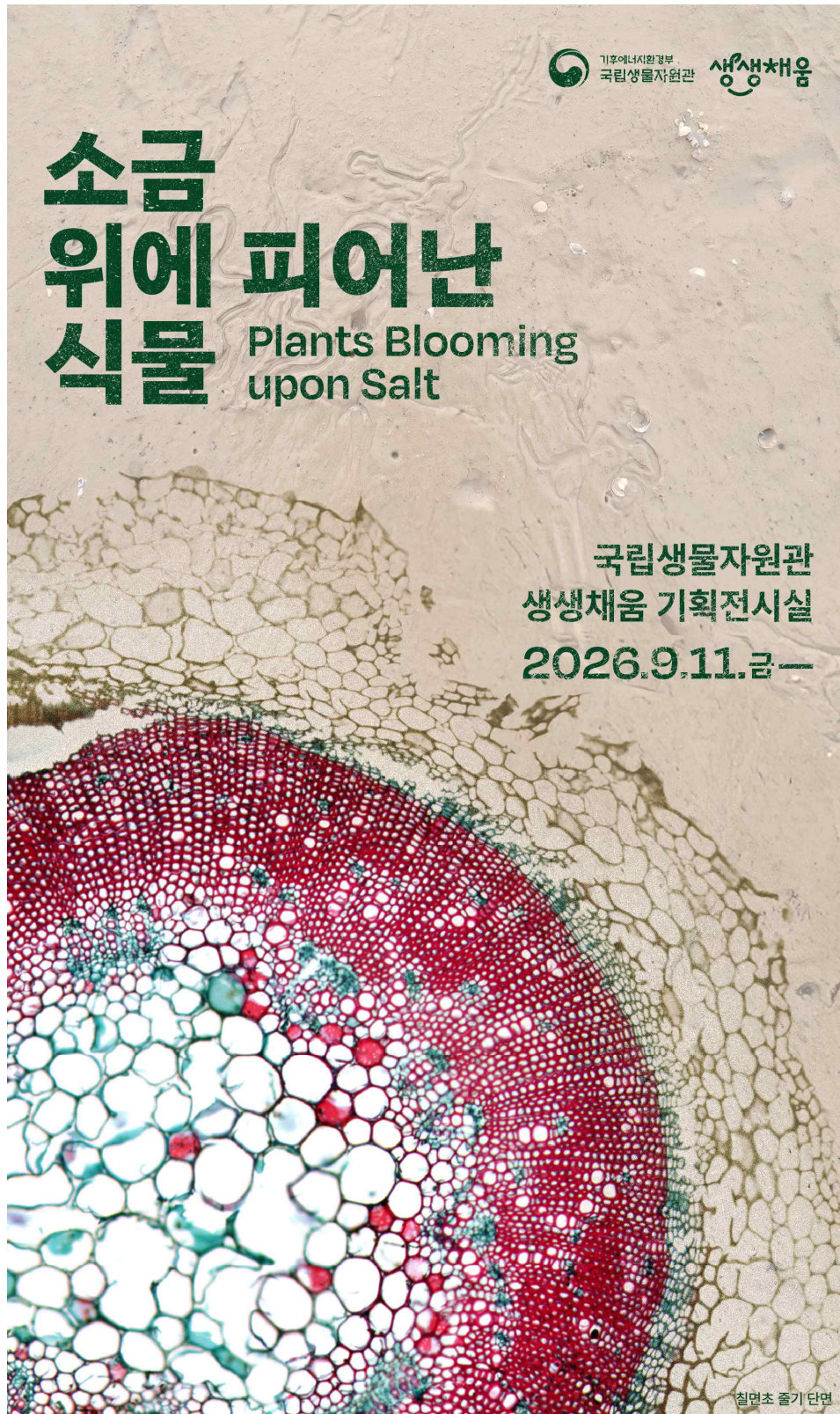
염분에 취약한 일반 식물과 달리 염생식물은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전시에서는 염생식물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왔는지 그 원리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아울러 반응형(Interactive) 디지털 체험을 통해 직접 염생식물을 심어보며 갯벌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기획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가 염생식물과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수많은 생물과 서식처를 함께 지키는 일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획전 포스터.
2. 염생식물 소개 영상 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	책임자	과 장	조가연 (032-590-7141)
		담당자	사무관	현혜정 (032-590-7062)
			연구사	전형배 (032-590-7232)





붉게 물든 염생식물과 노을의 조화로운 이미지

※ 인공지능(AI) 제작 기획전 홍보영상에서 발췌



염생식물인 나문재의 이미지

※ 인공지능(AI) 제작 기획전 홍보영상에서 발췌